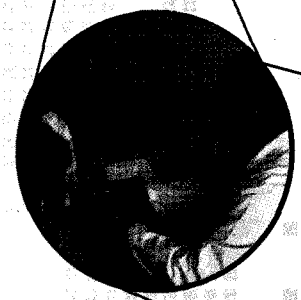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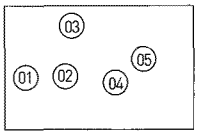
해외의료봉사의 롤모델을 제시하는

가톨릭대 해외의료지원단

지난 5월 11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이 개최한 제1회 해외보건의료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해외의료지원단이 대상의 수상을 차지했다. 가톨릭대 해외의료지원단은 2004년 3월부터 몽골 울란바토르에 설립한 상설 무료진료소 '성 메리 클리닉(St. Mary' s Clinic)' 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해외의료봉사의 롤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가톨릭대 해외의료지원단과 성 메리 클리닉을 만나본다. 글 최용균 도움 및 자료제공 가톨릭대 해외의료지원단





01 2007년 의료진 교육을 위한 협진 모습
02 성 메리 클리닉에서 소아과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김중호 신부
03 성 메리 클리닉을 개원하기 이전인 1998년에 몽골에서 진행된 의료봉사활동
04 성 메리 클리닉 설립자인 김중호 신부와 직원들
05 2009년 6월 성 메리 클리닉을 방문한 이재돈 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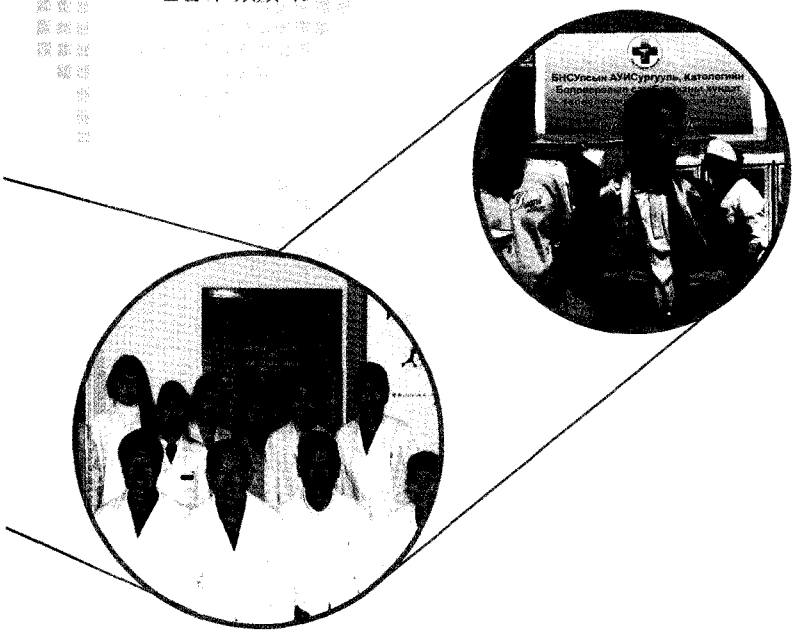
제1대 단장 김중호 신부의 열정으로 만들어진 무료진료소

성 메리 클리닉은 해외의료지원단의 제1대 단장을 역임했던 김중호 신부의 열정이 빚어낸 작품이다. 의사이면서 신부였던 김중호 신부는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무의촌과 남미, 아프리카 등지의 개발도상국을 오가며 의료봉사활동을 펼쳐왔으며, 몽골과는 1997년에 인연을 맺었다. 몽골의 1990년대 후반은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이 시작되어 사회 전반적으로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가 몰아쳤던 시기였다. 농촌을 벗어나 일자리를 찾기 위해 도시로 인구가 몰리면서 직업을 구하지 못해 의료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빈민층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했다. 그 동안 몽골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들의 해외의료봉사의 장이었다. 하지만 날씨가 좋은 6월부터 8월까지만 의료봉사단의 잦은 발걸음이 있을 뿐 수은주가 영하 30도를 밑도는 겨울에는 의료진의 방문이 겨울 추위처럼 뚝 끊어졌다. 가톨릭대 해외의료지원단 역시 처음에는 1년에 한두 차례 철새가 거쳐가 듯 몽골을 방문하며 의료

봉사를 펼쳤다. 이런 이유로 한 때 몽골에서는 여름 한 철 건강해진다는 우스갯소리가 나돌기도 했다고 한다.

김중호 신부는 매년 몽골의 같은 지역을 방문하여 의료봉사를 펼치면서 진료소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순박함과 진솔함에 매료되어 그들의 고달픈 일상에서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싶었으나 단기 의료봉사로는 그들을 제대로 달래주고, 보살펴줄 수 없었기에 더욱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 김중호 신부는 단기 의료봉사 그 이상의 노력을 몽골에 쏟기 위한 방법으로 상설 진료소의 운영을 꾀하게 된 것이다.

김중호 신부는 2000년부터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몽골 정부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2004년 3월 마침내 몽골 가톨릭 주교관이 내어준 울란바토르 성당에 '성 메리 클리닉'을 개원할 수 있었다.



현지 의사로 운영되는 성 메리 클리닉이야말로 해외의료봉사의 롤모델

성 메리 클리닉에는 매년 약 1만 3천명의 환자들이 찾아와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물리치료를 포함한 1차 진료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클리닉에 고용된 사회복지사가 환자들 가정에서의 질병관리 및 예방을 돕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클리닉이 우리나라의 파견의사가 아닌 현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8명의 의료진이 모두 현지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와 환자간의 의사소통이 수월할 뿐만 아니라 몽골의 문화를 잘 알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진료와 치료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가톨릭대 해외의료지원단의 역할은 무엇일까? 한 마디로 '서포터'이다. 지원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것이 바로 가톨릭대 해외의료지원단의 임무인 셈이다. 일례로 기증 받은 억대의 의료기기를 고장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엔지니어가 매년 수차례 방문하여 수리와 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이처럼 지원자의 역할에 충실한 가톨릭대 해외의료지원단에 힘입어 성 메리 클리닉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상설 무료진료소를 운영한 지 6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어엿한 클리닉으로 자리잡아 나가고 있다.

성 메리 클리닉이 해외의료봉사의 롤모델로 평가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기 의료봉사가 아닌 상설 의료봉사가 가능한 무료진료소를 운영하되 현지인 의사를 고용함으로써 몽골의 의료문화 발달에 기여하고, 그들의 자립능력을 키워주고 있기 때문이다.

가톨릭대 해외의료지원단, 지원 체계를 다져나가는데 전력

2년 전 김중호 신부가 단장에서 물러나고, 이재돈 신부가 제2대 단장으로 취임했다. 이 신부는 성 메리 클리닉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다져나가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상설 무료진료소를 1년 운영하는 데에는 약 1억 5천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재정적인 부분을 가톨릭대 해외의료지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은 김중호 신부의 인맥을 통해 필요한 기금을 조달해 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았다. 김중호 신부의 열정으로 운영돼 온셈이다.

성 메리 클리닉의 지원 체계가 다져지면 60~70년 전 해외 의료지원으로 시작된 진료소가 국내 최고 수준의 가톨릭 중앙의료원으로 성장했듯 성 메리 클리닉이 진료소에서 병원으로, 더 나아가 몽골의 중추적인 의료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이 목표를 향해 가톨릭대 의료지원단은 뜨거운 여름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저마다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내고 있다. 그들의 행보가 난관을 극복하고 피어난 연꽃처럼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리라 기대한다.